

2019년 8월 1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S&P500,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장단기 금리차(10y-2y) 역전 현상 개선(+0.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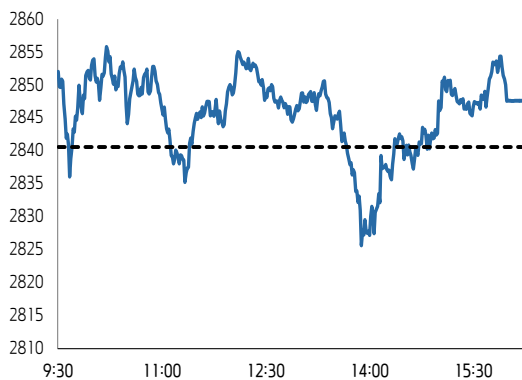
안정 찾은 미 증시

미 증시는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장단기금리차가 재차 플러스로 전환한 점도 상승 요인. 이런 가운데 월마트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종목의 호재성 재료도 긍정적. 다만,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우려가 여전히 부담이 되자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며 반등이 제한되며 혼조 마감(다우 +0.39%, 나스닥 -0.09%, S&P500 +0.25%, 러셀 2000 -0.40%)

전일 미 증시는 장단기 금리차(10y-2y)가 역전되자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3% 내외 급락. 글로벌 주식시장 또한 이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그러나 오늘은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나 단기물의 낙폭이 더 커지면서 장단기금리차가 안정을 찾자 주식시장 또한 안정. 한편, 과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던 시기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평균 7 개월 이후 고점을 형성했었음. 이는 연준을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펼치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쳤기 때문으로 추정. 실제 전일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자 연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ECB 또한 집행이사가 예상보다 많은 경기부양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이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요인은 미국의 일반적인 경기 침체 이슈 보다는 글로벌 매니저들의 수급에 의한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과거와 달리 은행들의 대출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실물경제지표가 견고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전일 옐런 전 연준의장이 "이번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한 의미를 덜 부여해야 한다" 라고 주장. 다만, 글로벌 펀드매니저들 서베이 결과(2008 년 이후 채권가격 상승 전망 최고) 채권시장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변동성이 커지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결과 작은 변화 요인에도 국채금리의 하락폭이 급격하게 이어질 수 있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938.37	휴장	홍콩항셱	25,495.46	+0.76
KOSDAQ	597.15	휴장	영국	7,067.01	-1.13
DOW	25,579.39	+0.39	독일	11,412.67	-0.70
NASDAQ	7,766.62	-0.09	프랑스	5,236.93	-0.27
S&P 500	2,847.60	+0.25	스페인	8,519.00	-0.04
상하이종합	2,815.80	+0.25	그리스	798.89	-2.40
일본	20,405.65	-1.21	이탈리아	20,020.28	-2.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월마트 급등

월마트(+6.11%)는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아마존에 대항해 키우고 있는 온라인 판매의 급증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폭이 컸다. 타겟(+0.82%), 코스트코(+1.26%)도 동반 상승 했다. 코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태피스트리(-22.20%)는 부진한 실적과 4분기 동일점포매출 부진(예상 +1.4%, 결과 -6.0%) 전망을 발표하자 급락 했다. GE(-11.30%)는 내부 고발자가 재정문제를 숨기고 있다면서 17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급락 했다. 특히 과거 Enron처럼 파산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한 비난을 가한 점도 부담이었다.

백화점 업체인 JC페니(+2.18%)는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콜스(-1.86%), 메이시스(-3.81%)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스코 시스템즈(-8.61%)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을 이유로 중국향 매출 둔화 전망 속에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하자 급락 했다. 갭(-7.08%)은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급락 했다. L브랜드(-5.56%), 노드스트롬(-2.57%)도 동반 하락 했다. 헬스케어 업체인 Agilent(+6.10%)은 양호한 실적 발표로 급등 했다. 장 마감 후 AMAT(+0.96%)과 NVIDIA(-0.87%)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각각 -1% 하락과 6%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1%	대형 가치주 ETF(IVE)	+0.08%
에너지섹터 ETF(OIH)	-1.89%	중형 가치주 ETF(IWS)	+0.13%
소매업체 ETF(XRT)	-1.59%	소형 가치주 ETF(IWN)	-0.40%
금융섹터 ETF(XLF)	+0.50%	대형 성장주 ETF(VUG)	+0.52%
기술섹터 ETF(XLK)	-0.18%	중형 성장주 ETF(IWP)	+0.3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5%	소형 성장주 ETF(IWO)	-0.47%
인터넷업체 ETF(FDN)	+0.13%	배당주 ETF(DVY)	+0.17%
리츠업체 ETF(XLRE)	+1.4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2%
주택건설업체 ETF(XHB)	0.0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8%
바이오섹터 ETF(IBB)	-0.34%	미국 국채 ETF(IEF)	+0.64%
헬스케어 ETF(XLV)	+0.35%	하이일드 ETF(JNK)	+0.36%
곡물 ETF(DBA)	-0.53%	물가연동채 ETF(TIP)	+0.44%
반도체 ETF(SMH)	-0.11%	Long/short ETF(BTAL)	+0.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4.12	-0.52%	-6.20%	-10.32%
소재	348.22	-0.01%	-4.39%	-4.77%
산업재	612.61	-0.23%	-4.25%	-5.64%
경기소비재	905.42	-0.08%	-3.90%	-7.27%
필수소비재	611.74	+1.51%	-0.14%	-1.56%
헬스케어	1,033.52	+0.35%	-2.06%	-3.63%
금융	432.16	+0.31%	-4.23%	-7.25%
IT	1,345.34	-0.19%	-3.36%	-5.46%
커뮤니케이션	162.44	+0.48%	-2.89%	-3.15%
유틸리티	308.83	+1.26%	+0.21%	-0.60%
부동산	237.36	+1.34%	-0.28%	+2.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낙폭 제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전일 2.40% 하락했으나 오늘은 0.55% 상승했다. MSCI 신흥 지수 ETF도 전일 2.88% 하락했으나 오늘은 0.67% 상승했다. 전일 야간시장에서는 외국인외 3,512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4.20pt 하락한 251.00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2.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 휴장인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하락했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 결과 S&P500 기준 평균 7개월 정도 후에 고점을 형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침체 우려로 매물이 출회될 수 있으나, 급격하게 지수가 하락하기 보다는 안정을 찾고 각국의 부양정책에 기대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일 중국 증시가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인프라 관련 종목과 소비재가 상승을 주도했다.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 데 힘입은 결과다. 이렇듯 중국 정부를 비롯해 ECB 등은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투자심리 안정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핵심적인 요인인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이슈가 완화된다면 최근 하락하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 증시 마감 후 NVIDIA가 양호한 실적 발표로 시간 외 6%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낙폭이 제한된 가운데 안정된 흐름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매판매 개선

7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해 전월과 예상치인 전월 대비 0.3% 증가를 크게 상회했다. 에너지와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7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해 예상을 하회했다. 특히 제조업생산이 전월 대비 0.4% 둔화돼 미국 산업생산 부진을 야기시켰다.

8월 뉴욕제조업지수는 전월(4.3)보다 개선된 4.80으로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도 전월(21.8)보다 부진했으나 예상치(10.0)를 상회한 16.8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는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이 제한된 가운데 9 월 1 일 추가 관세 부과시 중국 정부도 강력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부정적이었다. 더 나아가 미국 소매판매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이 둔화된 점도 부담이었다.

달러화는 미국 소매판매, 주택시장 지수, 지역 연은 제조업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ECB 집행이사가 시장이 예상하는 부양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파운드화는 노동당이 존슨 총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범 정치권 연합을 호소한 이후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되었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고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 대비 1.6%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견고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10 년물은 장중 ECB 의 정책위원이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한 때 1.5%를 하회하기도 했다. 한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성을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 했으나, 이 또한 금리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하락에 배팅하는 자금의 쏠림 현상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기도 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발 경기 부양 정책에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92% 철근은 0.14%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4.47	-1.38	+3.67	Dollar Index	98.116	+0.13	+0.51
브렌트유	58.23	-2.10	+1.48	EUR/USD	1.1107	-0.29	-0.65
금	1,531.20	+0.22	+1.44	USD/JPY	106.12	+0.20	+0.05
은	17,214	-0.38	+1.64	GBP/USD	1.2088	+0.23	-0.37
알루미늄	1,782.00	+0.39	+0.22	USD/CHF	0.9765	+0.34	+0.18
전기동	5,751.00	-0.24	-0.81	AUD/USD	0.6775	+0.40	-0.40
아연	2,264.00	+0.35	-1.74	USD/CAD	1.3313	-0.05	+0.65
옥수수	371.00	+0.20	-11.30	USD/BRL	3.9925	-1.46	+1.88
밀	474.50	-0.78	-5.10	USD/CNH	7.0494	-0.06	-0.38
대두	870.75	-0.83	-1.39	USD/KRW	1212.70	-0.78	-0.18
커피	98.00	+0.10	-2.83	USD/KRW NDF 1M	1212.50	-0.28	+0.4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12	-6.74	-20.54	스페인	0.031	-10.80	-18.90
한국	1.225	+0.50	-2.20	포르투갈	0.064	-10.40	-17.60
일본	-0.233	-1.40	-3.90	그리스	2.001	-2.80	-2.90
독일	-0.713	-6.30	-15.30	이탈리아	1.329	-17.60	-20.30